

“분양가 너무 높아” 선착순·할인분양에도 청약 수요 잠잠

**‘더샵파크솔레이유’ 등 서울 내 선착순 분양 多
분양가 10%할인·계약시 3000만원 지급 등 노력
정부 “건설사들이 우선 자구책 마련해야” 입장
“시세 대비 분양가 높은 단지 외면하는 게 정상”**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청약 을 통한 아파트 분양의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재값 인상, 후분양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다소 높게 책정했던 단지들이 인근 단지 시세에 비해 경쟁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로 전월 대비 17.1%(1만807가구)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수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6만2000가구를 웃도는 수치다.

실제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에 돌입했던 강동구 ‘더샵파크솔레이유’(3.3㎡당 3630만원),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3.3㎡당 2834만원),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3.3㎡당 3200만원)·‘칸탈빌 수유 팰리스’(3.3㎡당 3415만원) 등 단지는 현재 잔여 세대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일부 단지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왔지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 선착순 분양이란 일반공급이나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1대1 미만을 기록한 단지들이 선착순으로 계약을 받는 분양 방식이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청약통장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수요자들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 헤리티지’(3.3㎡당 2896만원)가 이날까지 선착순 분양 신청을 받고,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3.3㎡당 2800만원), 안양시 호계동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3.3㎡당 3280만원) 등이 선착순 분양을 받고 있다.

특히 안양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일반 분양가를 3.3㎡당 3211만원에서 2889만원으로 10% 할인하기로 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계약시 현금 3000만원 지급과 입주 전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 환불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청약자 A씨는 “분양가를 할인해도 최근 급락하고 있는 주변 구축단지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다보니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인프라가 비스

한 인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단지들이 주변 시세보다 1~2억원 가량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돌리는 전략도 취했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가 낮아지고 잔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규제지역 해제 및 자재값 상승 등 요인으로 분양가를 더 낮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분양가를 다들 조금씩 올리려는 분위기”면서도 “다만 최근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 건설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자 주택업계에서는 정부에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달라”고 공

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나 정부 측은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약 7000가구 수준으로 위험 수준이 아니라며 “건설사들이 우선 분양가 할인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인근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분양 단지를 외면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찾는 수요자들의 ‘육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라면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외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비 행태”라며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단지 이미지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이 늘지 않도록 건설사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향후 할인 분양이나 중도금 무이자 등의 건설사 자구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이슬기자

MZ의 투자법...미술은 기본, 미션·기프트콘으로 ‘재테크’

디지털 친화적 세대...자신만의 경험·가치 중시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재테크 방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재테크에 적극 뛰어들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MZ세대가 주도하는 금융업의 미래’ 보고서를 살펴보면 MZ세대는 미술품 조각투자나 같은 디지털 유행화 증권(DABS) 등을 투자 대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친화적이면서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

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가의 유명 미술품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트테크, 소소한 미션으로 수익을 내는 앱테크, 모바일 상품권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기프트콘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투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술 시장의 호황기에 힘입어 아트테크가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고가의 미술품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는 MZ세대부터 4050세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테사가 취급하는 미술품은 경제 정책이나 국제 정세 등 외부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부동산과는 달리 감가상각이 자유롭고 오래 보유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테사는 평균 25%의 매각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앤디 워홀, 마르크 샤갈, 뱅크시 등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블루칩 작가의 작품만을 엄선해 선보인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수입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앱테크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금융업계도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출시한 ‘하나머니’ 앱은 출석 체크를 비롯해 매일 걷기, 클락하기 등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간단한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미션당 3원부터 일 최대 5만원까지 여러 미션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원하는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워진 지갑 사정을 달래 줄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기프트콘(기프트콘+재테크)’도 있다. 기프트콘은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기프트콘(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정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차액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3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기프트콘 플랫폼 ‘기프트스타’와 제휴를 맺고 자사 앱인 ‘샵’ 내 모바일쿠폰 마켓을 통해 정가 대비 평균 12~16% 할인된 가격의 기프트콘을 선보이고 있다. 기프트콘을 구매할 수 있는 타 플랫폼과 달리 판매까지 할 수 있어 부수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들의 안정성이 이전만큼 담보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짙어짐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오투기 제주담음, ‘제주 감귤도우 피자’ 출시

오투기의 제주 특화 브랜드 ‘제주담음’이 제주 감귤절임을 넣은 향긋한 감귤 도우에 제주 흑돼지고기 등을 토핑한 ‘제주 감귤도우 피자’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 감귤도우 피자는 신선한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제주담음 브랜드의 다섯 번째 제품이다. 다채로운 매력의 제주도를 컨셉으로 제주 맛과 특색을 살린 피자 맛을 구현했다.

제주 감귤절임을 넣어 만든 향긋한 감귤 도우에 불고기 양념의 부드러운 제주 흑돼지고기와 제주산 당근, 적양배추, 양배추로 만든 상큼한 피클을 토핑으로 올려 제주의 다채로움을 담았다.

이번 신제품은 오투기몰에서 만날 수 있으며, 마켓컬리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오투기 관계자는 “제주 지역의 맛을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제주 감귤도우 피자’를 출시했다”며 “기존 피자와는 차별화된 도우와 토핑으로 맛의 새로움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코디아’ 출시



알톤스포츠는 신제품 전기자전거 ‘코디아’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디아 시리즈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성 있는 프레임 형상 등 ‘고성능화’와 ‘다양화’를 강조한 라인업이다. 대표 모델 ‘코디아 T20’, ‘코디아 D20’, ‘코디아 G7’ 총 3종으로 구성했다.

코디아 T20은 500W 모터를 탑재한 제품으로 기존 350W 제품보다 40% 이상 강력한 힘으로 오르막 길 등을 오를 수 있다. 이알톤 제

품 처음으로 크루즈 기능을 적용해 레버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다.

세미 팻(Fat) 타이어나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으로 안정적인 주행·제동 성능도 좋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500W 모터 제품도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 주목 받고 있다.

코디아 D20은 350W모터와 이알톤 최대 용량인 20Ah의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최대 주행 거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 역시 크루즈 기능을 적용했다. 시마노 변속기,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세미 팻 타이어나 적용했다.

코디아 G7은 로드 바이크 형상의 개성 있는 디자인의 전기자전거로 빠른 주행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350W 모터, 16.5Ah 내장형 배터리, LTWOO 10단 변속기,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했다. 700C 휠과 40C 폭의 타이어나 사용으로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도 탁월하다.

서선욱기자

한샘, ‘무한책임 리모델링’ 이벤트...“할인·상품권 쏜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무한책임 리모델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한샘은 28일까지 온라인 한샘닷컴에서 ‘무한책임 리모델링’ 상담 신청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샘의 ‘무한책임 리모델링’은 불투명한 공사비용과 무책임한 하자보수 등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됐던 고객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한샘은 ‘무한책임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사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호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호텔 숙박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정목 한샘 리하우스사업본부장 이사는

불투명한 공사비용 등 고객 불만사항 해결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고객 불만 사항을 한샘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무한책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서 작성과

정품 자재 사용, 한샘 직시공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스런 리모델링 공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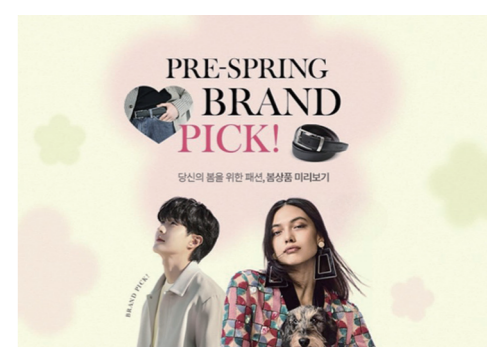
G마켓, ‘브랜드 픽’ 프로모션...최대 70% 할인

G마켓이 오는 19일까지 ‘브랜드 픽’ 프로모션을 열고 인기 봄 패션상품을 최대 7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G마켓과 옥션이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패션 프로모션으로 지오지아, 프로젝트엠, 온앤온, 금강, 엘칸토, 에스콰이어, 메트로시티, 탤디 등 총 63개 의류와 패션잡화 브랜드가 참여한다.

할인쿠폰도 풍성하다.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되는 ‘브랜드픽 10% 쿠폰’을 매일 ID당 5회씩 제공한다.

여기에 신세계인터내셔널, 에고이스트 등 브랜드 별 중복 쿠폰도 매일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증명하는 할인쿠폰 종류만 26가지로, 브랜드 및 쿠폰별 혜택은 상이하다.



신제품도 단독으로 선론칭한다. ‘레노마벨트’의 봄 여름 시즌 소가죽 벨트 9종을 선보이며, 최대혜택가 2만8800원부터 판매한다. 조르 지오 아르마니 제품도 입점 특가에 선보인다.

정승호기자